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19. 2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I 조사 개요

- ① 조사 배경 2
- ② 조사 개요 2
- ③ 조사 내용 2
- ④ 응답기업 특성 2

II 조사 결과

- ①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3
- ② 2019년도 고용계획 5
- ③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액 6
- ④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수행 업무 7
- ⑤ 기타 의견 9

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 '19년 1분기 외국인력(B-9) 신청률 98.5%로 미달 발생
- 이에 외국인력 신청률 저조 원인 및 중소기업업체 고용동향 파악

2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18년 외국인력 신청 중소기업업체 중 '19년 1분기 미신청 업체 11,171개사
■ 유효 표본	1,178개 업체 (응답률 10.5%)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 조사
■ 조사 지역/기간	전국 / 2019. 2. 12.(화) ~ 13.(수)
■ 조사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3 조사 내용

■ 2019년 1분기 외국인력 미신청 이유
■ 2019년도 고용 계획
■ 외국인근로자 급여 수준, 수행 업무 등
■ 업체 기본정보 : 상시근로자수 / 소재지 / 원하청 관계 / 업종

4 응답기업 특성

구분	업체수(개)	비중	구분	업체수(개)	비중	
전체	1,178	100.0%	식품료	78	6.6%	
종업원 수	1~5인	294	25.0%	섬의, 의류	58	4.9%
	6~10인	278	23.6%			
	11~30인	383	32.5%	화학, 플라스틱, 고무	209	17.7%
	31~50인	135	11.5%			
	51인 이상	88	7.5%			
소재지	수도권	380	32.3%	금속 또는 비금속 가공	409	34.7%
	광역시	157	13.3%			
	지방 시/도	641	54.3%	전자, 전기, 기계장비	86	7.3%
원하청 관계	원청	519	44.1%	목재, 인쇄, 의약품 등	95	8.1%
	1차	290	24.6%			
	2차	247	21.0%	기타	243	20.6%
	3차	91	7.7%			
	4차 이하	3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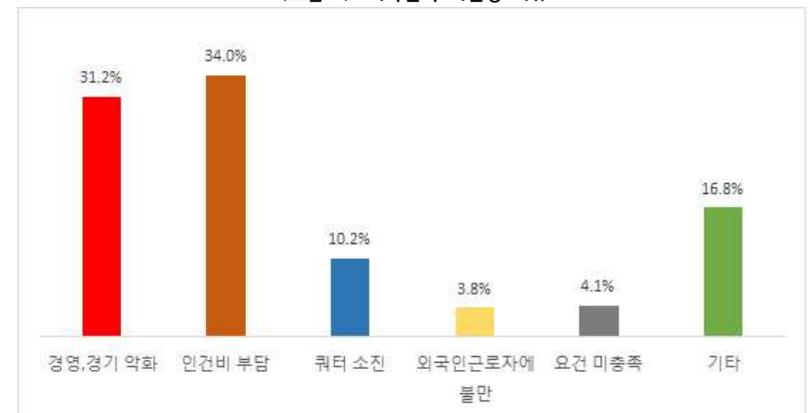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1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소 제조업체 65.2%가 경기부진, 경영악화 및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축소

- '19년 1분기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업체의 65.2%가 경기부진, 경영악화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축소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충원은 필요하나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경영악화, 경기부진 등으로 충원 불필요'라고 응답한 업체가 31.2%로 뒤를 이어 65.2%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한 고용 축소를 외국인 미신청 원인으로 응답
 - 이외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10.2%), '업체의 외국인고용 자격요건 미충족'(4.1%),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내국인 구인'(3.8%), '기타'(16.8%) 순
- 특히, 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영 및 경기악화를 외국인력 미신청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인상 이슈에 영세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외국인력 미신청 사유



〈표 1〉 외국인력 미신청 사유

(단위 : 개사)

구분	사례수	경영악화, 경기부진 등으로 인력충원 불필요	충원은 필요하나 인건비 부담	업체의 외국인 쿼터 소진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내국인 구인	업체의 자격요건 미충족	기타	합계	
전 체	1,178	31.2%	34.0%	10.2%	3.8%	4.1%	16.8%	100.0%	
근로자 수	1~5인	294	35.0%	40.1%	4.8%	4.1%	4.4%	11.6%	100.0%
	6~10인	278	31.3%	39.2%	10.4%	2.2%	2.2%	14.7%	100.0%
	11~30인	383	30.3%	31.9%	12.0%	2.9%	3.4%	19.6%	100.0%
	31~50인	135	31.1%	23.7%	17.8%	2.2%	5.2%	20.0%	100.0%
	51인 이상	88	21.6%	21.6%	8.0%	14.8%	10.2%	23.9%	100.0%
소재지	수도권	380	34.7%	32.4%	12.9%	3.4%	3.9%	12.6%	100.0%
	수도권외광역시	157	36.9%	30.6%	6.4%	3.8%	3.8%	18.5%	100.0%
	지방 시/도	641	27.6%	35.7%	9.5%	4.1%	4.2%	18.9%	100.0%
원하청 관계	원청	519	31.2%	30.1%	10.0%	4.2%	3.5%	21.0%	100.0%
	1차	290	26.6%	35.9%	12.4%	4.8%	6.2%	14.1%	100.0%
	2차	247	36.0%	33.2%	9.3%	3.2%	4.9%	13.4%	100.0%
	3차	91	34.1%	47.3%	7.7%	1.1%	0.0%	9.9%	100.0%
	4차 이하	31	25.8%	48.4%	6.5%	0.0%	0.0%	19.4%	100.0%
업종별	식음료	78	24.4%	30.8%	9.0%	7.7%	2.6%	25.6%	100.0%
	섬유, 의류	58	31.0%	41.4%	15.5%	0.0%	1.7%	10.3%	100.0%
	화학·플라스틱등	209	36.8%	35.9%	8.1%	5.7%	3.8%	9.6%	100.0%
	금속비금속기공	409	31.8%	33.5%	11.2%	2.0%	4.2%	17.4%	100.0%
	전자, 기계 등	86	34.9%	32.6%	12.8%	2.3%	1.2%	16.3%	100.0%
	목재, 인쇄 등	95	29.5%	40.0%	12.6%	4.2%	3.2%	10.5%	100.0%
	기타	243	26.7%	30.5%	7.4%	5.3%	6.6%	23.5%	100.0%

② 2019년도 고용계획

올해 고용계획 충원응답은 36.5%에 그침

- 2019년도에 내외국인 포함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36.5%에 그쳐 연중 생산 및 고용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
 - 응답업체 특성별로 보면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하청단계가 낮을수록,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2019년도 고용계획

(단위 : 개사)

구분	사례수	충원	현원유지	감원	합계	
전 체	1,178	36.5%	49.5%	14.0%	100.0%	
근로자 수	1~5인	294	33.7%	49.3%	17.0%	100.0%
	6~10인	278	32.7%	48.9%	18.3%	100.0%
	11~30인	383	36.6%	50.4%	13.1%	100.0%
	31~50인	135	41.5%	52.6%	5.9%	100.0%
	51인 이상	88	50.0%	43.2%	6.8%	100.0%
소재지	수도권	380	33.7%	47.1%	19.2%	100.0%
	수도권외광역시	157	26.8%	58.6%	14.6%	100.0%
	지방 시/도	641	40.6%	48.7%	10.8%	100.0%
원하청 관계	원청	519	36.8%	53.2%	10.0%	100.0%
	1차	290	39.7%	46.9%	13.4%	100.0%
	2차	247	38.9%	44.5%	16.6%	100.0%
	3차	91	23.1%	56.0%	20.9%	100.0%
	4차 이하	31	22.6%	32.3%	45.2%	100.0%
업종별	식음료	78	46.2%	44.9%	9.0%	100.0%
	섬유, 의류	58	34.5%	44.8%	20.7%	100.0%
	화학·플라스틱등	209	30.6%	52.6%	16.7%	100.0%
	금속비금속기공	409	35.5%	50.9%	13.7%	100.0%
	전자, 기계 등	86	41.9%	44.2%	14.0%	100.0%
	목재, 인쇄 등	95	38.9%	49.5%	11.6%	100.0%
	기타	243	37.9%	49.0%	13.2%	100.0%

3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액

생산 감소,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는 오히려 감소

-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액(제수당 포함)은 평균 231,5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작년 평균 월급여액(제수당 포함)인 255,4만원*보다 23,9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올해부터 변화된 노동정책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인해 잔업 수당 등 제수당 지급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자료 : 「2018년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8.7)

〈표 3〉 외국인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제수당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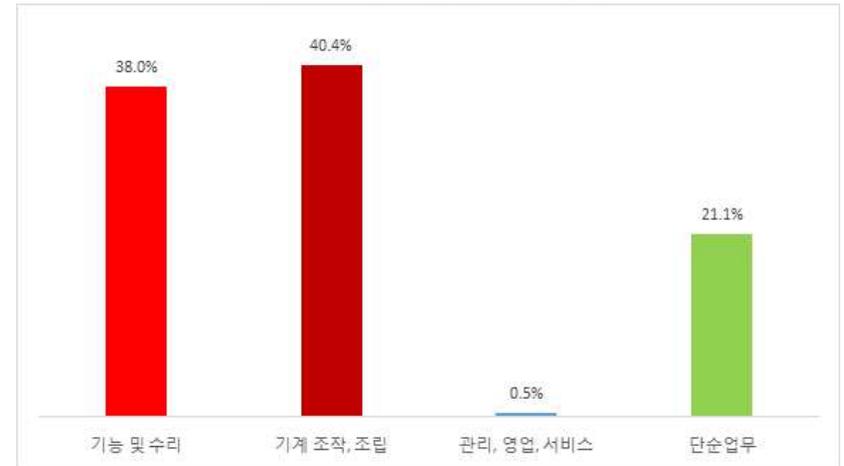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평균 월급여액
전 계		1,178	2,315,050원
근로자 수	1~5인	294	2,248,990원
	6~10인	278	2,336,098원
	11~30인	383	2,316,186원
	31~50인	135	2,380,758원
	51인 이상	88	2,363,512원
소재지	수도권	380	2,309,893원
	수도권 외 광역시	157	2,348,709원
	지방 시/도	641	2,309,863원
원하청 관계	원청	519	2,245,867원
	1차	290	2,348,925원
	2차	247	2,389,364원
	3차	91	2,402,446원
	4차 이하	31	2,307,752원
업종별	식음료	78	2,074,789원
	섬유, 의류	58	2,411,912원
	화학, 플라스틱 등	209	2,331,631원
	금속·비금속 가공	409	2,398,136원
	전자, 기계 등	86	2,306,713원
	목재, 인쇄 등	95	2,206,898원
	기타	243	2,260,180원

4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수행 업무

10명 중 8명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기능, 기계조작 등 업무 수행

-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생산 및 가공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숙련이 필요한 기능을 바탕으로 장치를 조작하거나 조립하는 등 단순노무업무 보다 수준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는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괄 규정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

〈그림 2〉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수행 업무



〈표 4〉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수행 업무

(단위 : 개사)

구분	사례수	생산 및 가공 관련 기능직, 수리직	생산 및 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조립직	사무관리 또는 영업, 서비스직	수동 포장, 단순 선별, 청소 등 단순업무	합계	
전 계	1,178	38.0%	40.4%	0.5%	21.1%	100.0%	
근로자 수	1~5인	294	35.7%	39.5%	0.7%	24.1%	100.0%
	6~10인	278	41.4%	43.2%	0.0%	15.5%	100.0%
	11~30인	383	37.1%	39.2%	1.0%	22.7%	100.0%
	31~50인	135	36.3%	41.5%	0.0%	22.2%	100.0%
	51인 이상	88	42.0%	38.6%	0.0%	19.3%	100.0%
소재지	수도권	380	38.4%	44.2%	0.0%	17.4%	100.0%
	수도권외광역시	157	33.1%	46.5%	1.3%	19.1%	100.0%
	지방 시/도	641	39.0%	36.7%	0.6%	23.7%	100.0%
원하청 관계	원청	519	38.0%	36.8%	0.4%	24.9%	100.0%
	1차	290	40.3%	39.3%	0.7%	19.7%	100.0%
	2차	247	34.8%	47.4%	0.8%	17.0%	100.0%
	3차	91	40.7%	45.1%	0.0%	14.3%	100.0%
	4차 이하	31	35.5%	41.9%	0.0%	22.6%	100.0%
업종별	식음료	78	46.2%	14.1%	0.0%	39.7%	100.0%
	섬유, 의류	58	44.8%	32.8%	0.0%	22.4%	100.0%
	화학 플라스틱 등	209	35.4%	37.8%	0.0%	26.8%	100.0%
	금속비금속 기계	409	38.4%	49.1%	0.2%	12.2%	100.0%
	전자, 기계 등	86	33.7%	57.0%	1.2%	8.1%	100.0%
	목재, 인쇄 등	95	32.6%	44.2%	2.1%	21.1%	100.0%
	기타	243	39.1%	30.9%	0.8%	29.2%	100.0%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관련 기타의견

- 기타 의견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고,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불만’, ‘찾은 사업장 이동과 업무태만’, ‘복잡한 절차 및 제도운영 미흡’, ‘숙식비 등 제 경비 부담에 대한 불만’ 순으로 언급됨

〈표 5〉 기타의견

구분	연급빈도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331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 중단할 예정
		버티기기 힘들.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함
		원청에서 임가공비는 동결하거나 내리는데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라 감당 어려움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가 같아져 내국인 근로자의 불만 높아짐
낮은 생산성, 의사소통 어려움, 부적응 등	198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작업지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생산성을 떨어지거나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 지급
		E-9 비자 한국어 시험을 제대로 하는게 맞는지? 기초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음
과도한 사업장 이동, 태업 등	106	말끝마다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협박하고 불리한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함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할 수단 필요함
		기술 가르쳐 놓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때문에 신규 인력을 받을 필요 못느낌
복잡한 절차, 제도운영 미흡	90	배정받은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고, 악질적인 태업시 본국송환 조항 필요
		외국인근로자의 기술, 특기, 경력 등 자료 부족함. 현재는 나이, 키, 체중, 학력만 확인
		고용부, 법무부, 인력공단, 보험사 등 관련기관이 분산되어 너무 복잡함
숙식비 등 제경비 부담	46	고용센터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마치 구걸하러간 사람 취급함
		기숙사비, 식비를 업체가 일괄 공제하게 해야 함. 자율로 하면 사업장 이동함.
		업체가 제공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 시켜야 한다.
기타	53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내국인 보다 더 많은 비용 소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는데, 출국할 때 다 찾아감
		내국인 구인 노력은 365일 내내 하는데, 워크넷 등록기간을 놓쳤다면 신청이 안됨
		도착, 가공하는 업체인데 인두고 근로자를 배정해주는데 이걸 제도 운영 잘못이다.